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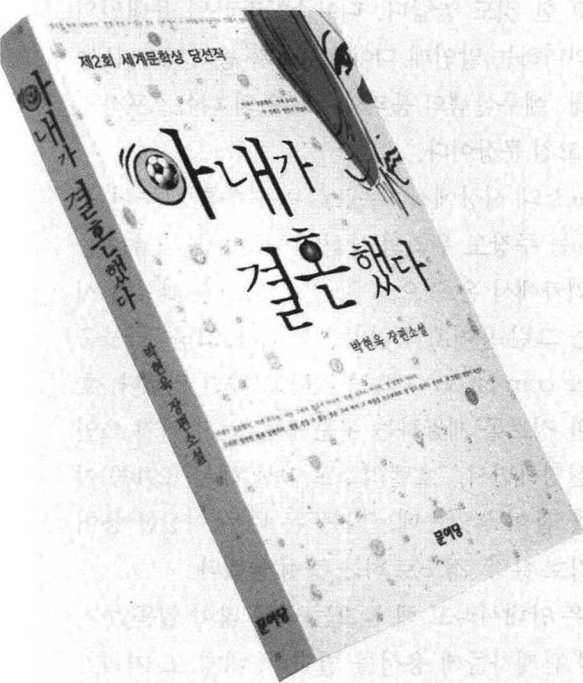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축구가 도입된 때는 1882년이다. 제물포에 상륙한 영국 해군들이 축구 전도사였다. 그때 영국에서는 1871년에 출범한, The Football Association Challenge Cup(지금의 FA컵)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영국 해군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바리 축구'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을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 '조선축구협회'가 창립된 때는 영국 해군들이 축구의 노하우를 선보인 지 50년도 더 지난 1933년의 일이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비교 대상이 등장한다. 로망스로 뭉뚱그려져 읽혔던 소설이 '소설'이란 장르를 획득한 것이 18세기이고, 우리나라 근대소설의 출발점이 1910년대인 점을 생각해 보면 소설과 축구는 역사적 거리감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이다. 축구와 소설은 스포츠와 예술이라는 현격한 거리를 두고 있는데도 그 성장 시기는 비슷한 것이다. 그렇다면 축구와 소설은 정말 현격한 차이를 둔 장르일까. 그렇기는 하지만 두 장르의 닮은 점은 의외로 많다. 축구와 소설 모두 꽤 넓은 운동장을 필요로 한다. 부딪치고 넘어지고 뒹굴면서 기막힌 반전을 만들어낸다. 꽤 많은 인물이 다양한 역할을 맡은 채 등장한다. 언뜻 근육질만을 떠올리게 하지만 순간순간 섬세함이 가미되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못한다. 예를 들자면 한이 없다. 축구의 인기가 시들한 때가 있었던 것처럼 소설의 인기 역시 시들한 때도 있고 약자지결한 때도 있다.

필자는 지금 축구 잡지에 축구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다. 축구와 소설 얘기를 동시에 펼치려는 중이다. 그 중심에 박현욱의 장편소설 《아내가 결혼했다》가 자리해 있다. 《아내가 결혼했다》는 1억 원 고료 2006년 세계문학상 수상작인데, 문제는 이 소설이 문학상이 까다롭게 요구하는 진지함을 유지하면서도 엄청나게 재미있다는 사실이다. 또 한 가지 흥미는 이 소설이 본격적으로 축구를 끌어들여 소설적 서사敍事를 소화해 내고 있다는 점이다. 걸으로 드러나는 인물은 한 여자와 두 남자, 세 명에 불과하다. 장편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작가가 소설적 밥상에 올려놓은 라이언 깁스, 마라도나, 펠레, 박지성, 홍명보, 티에리 앙리, 지네딘 지단, 가브리엘 오마르 바티스타타 등의 세계적 축구 스타들은 소설 속의 조연급 인물로 역할하면서 소설의 공간을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

《아내가 결혼했다》는 제목부터 도발적이다. 그러나 소설 내부로 들어가면 '나'의 아내는 더욱 도발적인 캐릭터로 설정돼 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멀쩡한 남편을 두고 있으면서도 또 한 번의 결혼을 감행하는 것이다. 몰래 결혼하는 것도 아니다.

박현욱의 《아내가 결혼했다》 축구에 빚댄 폴리아모리



《아내가 결혼했다》박현욱 지음 | 문이당 | 358쪽 | 값 9,800원

● 이 글을 쓴 임동헌은

1985년 단편 <묘약을 지으며>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민통선 사람들》《기억의 집》《편지를 읽는 시간》 등의 소설, 《길에서 시와 소설을 만나다》《가족식사》 등의 산문집, 《풍경》《가족》《아가에게》《별》 등의 사진에세이집을 냈다. 일간지 기자를 거쳐 <출판저널> 주관을 지냈으며, 현재 한양여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로 있다.

‘도발적인 아내’는 남편인 ‘나’를 비교적 간단하게 설득해 이혼하지 않은 채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데 ‘성공’한다. 두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두 남자 모두를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면 함께 살아야 하고, 함께 사는 것을 완성하는 것은 결혼이기 때문에 두 남자 모두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설 속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이쯤 되면 퀘변에 불과한데, 작가는 이 설정을 억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끌고 나간다. 이 도발적인 아내가 두 남자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도 뺏기기 싫을 만큼 매력적인 탓이다.

한 여자와 두 남자가 결혼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는 축구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세 사람은 모두 축구에 관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마니아이다. ‘나’는 레알 마드리드 팬이고, ‘나’의 아내는 FC바르셀로나 팬이다. 아내의 또 다른 남편은 호나우두 팬이다. 세 사람이 축구로 묶여 있는 셈인데, ‘나’의 아내는 이렇게 폴리아모리(비독점적 다자연애) 형식의 결혼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축구 용어를 빌려 간단하게 설명한다. ‘우리 팀은 투톱 체제야’라고 말이다. 과연 그렇다. 세 사람이 모였으니 팀이고, 한 여자가 두 남편을 두고 있으니 투톱 체제인 것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기막힌 상황이 발생한다. 아내가 임신을 한다. ‘나’는 아내가 누구의 아기를 임신했는지 알고 싶어한다. 아니, 발을 동동 구를 지경이다.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간단하다. 세 사람 모두의 아이이니 어떤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인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역시 퀘변 같지만, 작가는 이런 설정을 퀘변으로 전략시키지 않는 장치를 선보인다.

그 장치는 세계 여러 나라, 세계 여러 부족이 다양하게 유지하고 있는 결혼 형태에서 나온다. 이를테면, 인도의 토다 족은 한 여자와 남자의 형제들이 공동의 가구를 이룬다. 여자가 임신하면 임신 기간 동안 형제 중의 한 사람이 여자에게 장난감 활과 화살을 선물한다. 그 사람이 법적으로 아버지의 자격을 얻게 된다. 여기서 어떤 형제와의 육체적 관계에서 생긴 아이인가는 고려되지 않는다. 티베트에서는 가장 연장자인 첫 번째 남편이 모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된다. 다른 남편은 생물학적 아버지라 하더라도 아이의 삼촌이 된다. 그뿐인가. 모수 족 사회에는 아예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다. 모권이 우세한 사회이기 때

문에 아이에 대한 모든 권한은 어머니에게 있고, 아이들 역시 아버지가 누구인지 굳이 알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의 아내는 모수 족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산통을 겪고 있는 시간에 두 남편은 호나우두가 뛰던 시절의 바르셀로나, 지단의 프랑스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아내의 출산 전갈을 기다린다. 그리고, 아내는 아기를 낳고 나서 말한다. ‘외할아버지를 닮았어. 예쁘지?’라고 말이다.

이쯤 되면 《아내가 결혼했다》는 ‘소설 시장이 죽었다’는 출판계에 단비를 내려줄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장편소설 한 편을 읽는 일이 박지성이 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게임을 보는 것처럼 즐겁다. 그러나 ‘그게 다’라고 속단하면 안 된다. 작가는 이 소설에 축구와 폴리아모리를 더블 볼란치(‘볼란치’는 방향타를 뜻하는데 축구의 경우 수비수들이 포백을 설 때 센터백 두 명 앞에 미드필더 두 명을 세우는 것을 뜻한다)로 세워두고 보편적 윤리관에 대한 논쟁을 유발하는 한편 축구와 삶의 역동성을 함께 드리블해 나간다. 줄거리는 단순하지만 거기에 사회적 상상력을 깊이 있게 동원함으로써 자칫 시트콤 같은 대중소설로 전락할지도 모를 함정을 절묘하게 피해 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내가 결혼했다》가 현격한 개성을 획득한 가장 큰 이유는 김영하 박민규 김경욱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덕 아드보카트 감독보다 훌륭하게 더블 볼란치 작전을 치러낸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작전에 동원된 소설의 한 문단을 보면 《아내가 결혼했다》의 가치를 금세 알 수 있다.

‘200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뜻밖에도 극우 정치인 장 마리 르펜이 결선 투표에 올라갔다. 지단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프랑스적 가치와 동떨어진 국민 전선의 르펜에게 투표하는 행위가 가져올 심각한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 모두 투표장에 나가 르펜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호소만 한 것이 아니라 협박도 했다. “택하라. 르펜이나, 지단이나. 만약 르펜이 당선된다면 나는 축구를 그만두겠다.” 지단은 축구를 계속했다. 르펜은 떨어졌다.

이 문단만으로도 《아내가 결혼했다》는 재미있는 소설, 그 이상이다. **◆◆**

글_임동현